

‘행복한 경영대학’ 10년… 中企 CEO들에 행복 바이러스 전파

인터뷰

이 의 근

(사)행복한성공 이사장

휴넷 후원, 2016년부터 전 과정 무료
10년간 1100여명 졸업생 배출
李이사장, 2022년부터 운영 총괄
삼성 거쳐 수원하이텍고 교장 역임
“건강한 생태계·선한 영향력 키울 것”
참여자 매출·직원증가 선순환 효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과정인데 공짜다. 알만한 대학의 비싼 CEO 과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장님들은 이를 통해 체득한 ‘행복경영’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행복 바이러스’다.

교육기업 휴넷이 뒷받침하고 사단법인 행복한성공이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경영대학’ (행경)이 지난 10년간 걸어온 발자취다.

“‘행복한성공’은 기업 경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등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수업료가 없는 CEO 과정은 아마도 유일할 것이다. 돈을 안받으니



이의근 이사장이 ‘행복한 경영대학’ 1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서적 ‘calling’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김승호 기자

(우리가)사람을 마음껏 고를 수 있다. 이곳을 거친 분들은 ‘가치공동체’다. 수강생 중 동문들 추천 비율은 60~70%에 이른다. 자신이 제일 아끼는 또다른 CEO들을 여기에 데려 온다.”

이의근 이사장은 2022년부터 (사)행복한성공을 이끌고 있다. 3년 임기인데 어느덧 두번째 임기에 접어들었다.

이 이사장은 87년 당시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디스플레이 경영혁신팀장, 삼성전자 TP센타 인사팀장 등 경영 임원을 하기까지 30년간을 삼성에서 일했다. 삼성을 퇴직한 후에는 마이스터고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을 4년간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내게는 30년간의 삼성

생활이 ‘채움’의 단계였다. 채움 단계를 마치고 퇴직하면서는 자연스럽게 ‘나눔’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교장을 하면서였다”며 “두 차례 걸친 서류 심사 와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영광스럽게도 경기도에서 1호 산업체 출신 교장이란 타이틀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이 행경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자신이 2018년에 6기로 입학하면서다. 행경은 지난해 18기까지 배출했다. 이에 앞서 그는 휴넷 창업주인 조영탁 대표가 쓴 ‘행복한 경영이야기’를 읽으며 정서적 교감을 하기도 했다. 조 대표의 부탁에 교장 임기를 마치고 큰 고민없이 행복한성공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경은 ‘CEO가 변해야 기업이 변한다’는 믿음을 토대로 펼치는 휴넷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이를 통해 1만명의 경영자를 양성하면 그들이 이끄는 직원들도 행복해지고,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이상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수강생들은 무료지만 CEO과정을 만든 조 대표는 운영을 위해 매년 5억원씩을 기부하고 있다. 물론 참여한 CEO들의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 손욱 전 삼성전자 사장, 고인이 된 이민화 벤처기업 협회장 등이 교수진으로 동참했고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윤은기 한국협업

진흥협회장은 관련 취지에 공감하면서 10년째 열정적인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행복한성공에 따르면 동문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은 11% 증가하고 직원수도 6% 늘어나는 등 행복경영이 경영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CEO의 행복→임직원 행복→기업 성과 제고→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나라 경제와 국가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등 선순환 효과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 등을 토대로 ‘행복경영지수’를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조직문화를 가꾸기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지수를 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게 목표다. 그 생태계에선 사람, 즉 구성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업은 지속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행복경영을 추구하는 이 이사장은 최근의 쿠팡 사태를 보면서 적지 않은 생각도 들었다.

“쿠팡은 기업의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을 도구로 활용하고 법적인 것만 충족하면 되는 조직은 안된다. 행복한 경영대학을 통해 마력이나마 선한 경영이 주목받고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CC클라스

올해 디자인 테마

‘스틸 인 플럭스’ 제시

변화의 시기 맞아 공간기준 재정립

KCC클라스가 올해 디자인 테마로 ‘스틸 인 플럭스(Still in Flux)’를 제시했다.

스틸 인 플럭스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유연한 선택과 조정을 통해 공간의 기준을 다시 정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5일 KCC클라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인 ‘2026 트렌다이버(TR ENDIVE)’를 개최했다.

트렌다이버는 KCC클라스 홈페이지가 매년 초 주요 고객사 담당자들과 함께 인테리어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주목해야 할 디자인 트렌드를 전망하는 세미나로, 6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다.

KCC가 ‘26/27 인테리어 트렌드’를 주제로 사회, 경제, 문화,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흐름을 다각도로 해석해 도출한 3가지 디자인 방향성은 ▲서로 다른 스타일과 재료, 문화적 배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CHORD(코드, 조율의 미학)’ ▲메탈의 차가움과 우드의 따뜻한 등 대비되는 소재의 균형을 통해 절제되고 깊이 있는 감각을 추구하는 ‘SENSORIAL(센소리얼, 감각의 온도)’ ▲여백과 재료 고유의 질감을 통해 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와 본질을 집중하는 ‘MEANING(미닝, 의미의 결)’ 등이다.

/김승호 기자

팁스 통해 창업기업 800개 지원

R&D 최대 8억으로 ‘대폭 확대’

중기부,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비수도권 우선 할당, 투자요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TIPS)를 통해 올해 창업기업 800개사를 선정,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R&D 일반트랙 지원금액을 2년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우선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R&D 일반트랙 지원단가 상향은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R&D 답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팁스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에서 일반트랙 졸업 기업으로 개편해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팁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한다.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 완화(수도권 2



중소벤처기업부.

억원, 비수도권 1억원)한다.

선정평가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소를 반영한다.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R&D 답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에서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중기부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AI·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스테디셀러’ 육성 판로 확장

中企·소상공인 판로지원 통합 공고 ‘일사천리’ 통해 홈쇼핑 생방송 기회

홈앤쇼핑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도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홈앤쇼핑은 ‘2026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 통합 공고’를 사전 안내하고 TV홈쇼핑과 모바일, 해외 수출까지 연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상품은 홈앤쇼핑의 TV홈쇼핑 방송을 연내 지원받는다. 방송 이후에는 스테디셀러 상품으로 육성에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우선 국내 판로지원 분야에선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지체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TV홈쇼핑 생방송 1회(50분) 노출 판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돕는다. 모바일 판로지원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매장 입점을 지원한다. 다양한 주제별 영역을 구분해 상품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지원 사업도 연중 상시 진행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토론회,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토포리 비스를 비롯해 상품 직매입 수출, K-뷰티·푸드 등 K-우수상품 수출 지원, 국내외 박람회 및 행사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일사천리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TV홈쇼핑 방송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코트라, 더우인과 K-소비재 中 진출 ‘가속’

국내 기업과 현장 매칭 확대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더우인의 해외 사업 담당자가 한국을 찾아 국내 K-소비재 기업들과 교류에 나서며 중국 역지구 시장을 겨냥한 유통·물류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 본사에서 더우인 활용 중국 역지구 물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최대

유통·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더우인과 협력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역지구 물류 인프라, 온라인 마케팅 전략, 라이브커머스 활용 방안을 종합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사업 총괄책임자가 이끄는 뷰티·반려동물·패션·유아용품 구매책임자 5명과 중국 현지 벤더사 39개사, 중국 인플루언서 31명이 함께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교류했다.

/원관희 기자 wkh@